

'그린바이오 산업메카'로 성큼

명예농업시장 정명채 박사, '그린바이오 산업과 익산시 정책 연계' 특강

익산시가 10조 그린바이오 산업 선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범시민 공감대를 조성한다.

정부가 '그린바이오' 산업을 5년 내 10조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익산시가 산업 대표인 프라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제5 혁신 산업단지'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시대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형성을 통해 글로벌 그린바이오 산업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24일 시는 전주시 공무원과 농민단체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 교육관에서



익산시 명예농업시장이자 농업경제학 전문가인 정명채 박사의 '그린바이오의 이해' 특강을 진행했다. 정명채 박사(명예농업시장)는 농업 생명 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新)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의 주요 분야로 기능성 식품, 식물백신, 화장품 원료, 바이오

디젤 등을 꼽는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확장성을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정 박사는 "미국·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고성장이 예측되는 반면 국내 산업 발전 규모는 미진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익산시의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미래 산업을 선점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시는 2021년 전국 1호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유치해 현재 건립 추진 중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가 농업인들의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개발을 위해 화훼류 시범재배를 추진한다.

고부가가치 화훼류 시범재배

군산시, 화훼경관 이용 원예자원 개발·육성 추진

군산시가 농업인들의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개발을 위해 화훼류 시범재배를 추진한다.

시는 24일 새만금 인근 농경지를 이용한 화훼작물의 지역 적응성 및 경관 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화훼류 시범재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지원을 활용해 아름다운 농촌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 농촌관광, 지역축제 등과 연계함으로써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형태의 경관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화훼 경관작물 재배를 위해 나리(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 초화류 등 적응성 높고 화중산발 재배 결과에

의한 화훼단지육성, 꽃문화 축제 등 다양한 원예자원 기반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대부분 나리재배는 종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내 재배환경에 맞는 품종개발된 나리식재로 4~5월에 꽃을 보고, 10월 구근생산의 가능성을 실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적응성증을 통해 단계적 확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신동우 기술보급과장은 "군산시 화훼경관농업 육성으로 군산농업 자원 융·복합화 및 관광상품화로 농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그 날의 합성 기억하며, 애국심 함양하자"

군산시 제104주년 3.1절 기념행사 등 4년 만에 개최

군산시가 오는 3월 1일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기념행사를 4년 만에 개최한다.

시는 오는 3월 1일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일일(구입동)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앞서 호남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인 3·5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기념관 일일(구입동)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식에 앞서 호남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인 3·5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기념관 일일(구입동)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식에 앞서 호남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인 3·5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기념관 일일(구입동)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다.

또한 평화대행진을 하며 만세운동 및 그날의 애환을 담은 시낭송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군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이 고취될 것이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통한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행사를 주관하는 '군산 3·1운동 기념사업회'는 시와 군산경찰서, 군산교육지원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제104주년 3·1절 기념행사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3·1

절기념 백일장미술포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군산사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암교회와 3·1운동 기념관 광장에서 개최하고, 역사사건전을 내달 1일부터 25일까지 군산 3·1운동 선교회 타워(6~7), 구암교회 전당에서 가진다.

김영만 3·1운동기념사업회장은 "4년 만에 개최되는 기념행사인 만큼 많은 군산시민과 학생들의 참여로 보훈문화가 확산되어 세대 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3·1운동 행사에 많은분들이 참여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하는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 방문의 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 총력

익산시가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봄맞이 관광객을 겨냥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용산역에서 익산관광브랜드 캐릭터 '마룡'이와 함께 익산여행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 10일에도 여행객을 겨냥하여 가차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익산의 대표 봄 관광지를 알렸다.

익산의 대표적인 인스타 성지인 '아가페정원'을 홍보하며 산객객들을 맞

이할 봄꽃 소식을 전했다.

아가페정원은 봄을 맞아 체송화, 영산홍 철쭉 등을 비롯하여 봄꽃 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유럽식정원인 포말가든 끝에서 카메라를 꺼내면 색색의 꽃과 멀리 쪽 뻗은 메타세쿼이아까지 한 컷에 나오는 SNS 업로드용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익산벚꽃명소도 함께 홍보했다. 왕궁리유적은 왕궁리 오층석탑과 함께 흐드러지는 벚꽃나무를 볼 수 있

다. 만경강으로 꽃놀이를 간다면 만경강문화관광 산책코스, 자전거길까지 여러 코스로 꽃내음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내 대표 이색축제인 봄시즌 익산문화제(4월7일 ~ 4월9일)와 보석대축제(4월5일 ~ 4월16일)를 함께 알렸다.

시 관계자는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봄날에 익산에 오셔서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란다"며 "2023 익산방문의 해'를 기념해 봄맞이 여행시즌을 앞두고 더욱더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미취업 청년 구직 활동비 300만원 지원

익산시가 미취업 구직 청년들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전북형 청년활동비'를 지원한다.

'전북형 청년활동비'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체크카드와 연계된 포인트로 지급돼 확인 수감료, 교재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비 등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접적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직활동을 위한 식비, 교통비, 사무용품비 등 간접적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읍면동지사협 활동 본격화

익산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5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2층에서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갖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이 참석해 제5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29개 읍면동 총 465명의 위원과 함께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며 읍면동의 지역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지역 보호 체계 구축 복지지원 발굴 및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읍면동지역복지특화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읍면동 공공 지역복지 특화사업인 '이웃에(愛)돌봄'과 관련하여 주논의가 이루어졌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행을 알게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